## 대정인터내셔날, CGS와 MOU 체결

# UV CTP 프리즘과 통합솔루션으로 공급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1. 키페스 대정인터내셔날 부스 2. CGS와 MOU 체결을 알리는 현수막 3. 인쇄인의 호응을 받은 대정인터내셔날 세미나

대정인터내셔날(대표 송갑선)은 지난 9월 28일 오전 KIPES2011 행사장에서 '(주)대정인터내셔날 & CGS 워크플로 공급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체결식은 대정인터내셔날이 앞으로 UV CTP 세터인 프리즘과 CGS워크플로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하여 공급하게 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송갑선 대표이사는 "우선 시장에 출시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UV CTP 세터인 프리즘을 사랑하고 선택해준 고객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MOU체결을 통해 고객사들에게 완벽한 CMS 구현과 함께 인쇄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앞으로 CGS의 교정솔루션과 함께 잉크세이버 및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최고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춘 UV CTP 세터인 프리즘과 27년 전통의 독일 원천기술이 만나 고객사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정인터내셔날은 지난 키페스2011전시회 기간에 인쇄기술세미나도 열어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했다. 디자인의 시작인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비롯하여 프레스매치 워크플로 및 컬러튜너 등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인쇄표준화 및 색상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세미나실을 찾은 인쇄인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프리즘-E 출시를 기념하는 파격가 한정판매를 10월 한 달 동안 시행해 고객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대정인터내셔날은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프리즘을 비롯, 한정된 기간이지만 고객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성공 비즈니스의 동반자로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산 UV CTP 세터인 프리즘

아주하이텍이 순수한 국산기술로 개발한 '프리즘'은 다양한 라인업의 구성이 특징이다. 다양한 인쇄 작업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UV 세터의 경우, 405nm의 정밀도를 갖고 있으며 80채널, 128채널, 192채널 및 256채널을 갖고 있다. UV CTP와 서멀 CTP의 2종류로 생산되고 있는 프리즘이 갖는 최대의 장점은 역시 다양한 판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